



- 연중 제27주일 · 군인 주일 - 2019년 10월 6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20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교구청 경당



설립 2012년 11월 5일 전화 사무실 031-850-1400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제1독서 하바 1,2-3; 2,2-4

화답송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2티모 1,6-8.13-14

복음 환호송 1베드 1,2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루카 17,5-10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김형국 요셉 신부
지금동 부주임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얼마 전 우연히 한 유명연예인이 등장하는 티비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믿음’, ‘믿음’이라는 감탄사가 나오면서, 마지막 대사로 “믿음은 확인하는 것입니다.”라는 말로써 끝맺음을 맺는 광고였습니다. 티비 광고에 ‘믿음’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주제어로 등장하기에, 처음에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광고를 생각하다보니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였습니다. 참으로 그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광고에서처럼 그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받드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지식만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응답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처럼 ‘믿음’이 ‘확인하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믿음’은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와도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얻게 될 희망을 꿈꾸며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독서에서의 하바쿱 예언자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은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

다시 당신 곁으로

박진주 베로니카 / 능곡 성당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저에게 가끔씩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고등학교 3학년시절, 수험생 미사를 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사실 저의 신앙심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깊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학창시절의 대부분은 냉담을 하며 성당을 멀리 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나간 수험생미사 또한 신부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성당에 앉아 있는 있었지만 수능 전 날이라 머릿속은 딴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 평소에 보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친구들이 이럴 때만 미사에 온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다시 주님 곁으로 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이 다시 당신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셨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힘들 때나 무언가를 바랄 때

만 찾았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라도 오는 저를 기쁘게 반겨준다는 생각을 하니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겨낸 시련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담을 하던 중에도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항상 주님부터 찾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기쁘거나 즐거울 땐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힘들 땐 꼭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왜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느냐’고 화를 내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짐을 덜어주고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뒤에서 받쳐주십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나 혼자 고생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혼자였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저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도 힘든 일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는 당신께서 항상 곁에 계시며 힘을 준다는 걸 알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



애가 셋이라는 좋은 핑계

우리집은 날마다 10리터짜리 봉투 하나가 꼭 찰 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대부분은 일회용 기저귀다. 셋 중에 두 녀석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다. 아이들이 쓴 기저귀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아득해진다. 일회용 기저귀는 젖은 상태라 소각할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다. 환경을 생각하면 천기저귀를 쓰는 게 맞고, 실제로 첫째는 천기저귀를 사용했으나 서너 달 만에 포기했다. 둘째서부터는 시도도 안 해보고 일회용을 쓰고 있는데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자주 죄스런 기분이 들곤 한다. 이제라도 다시 천기저귀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이 편리함을 포기할 순 없으니 환경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편을 택하련다.

애가 셋인 건 종종,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좀 번거롭더라도 천기저귀를 쓰지 않는 건 내가 애를 셋이나 키우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이고, 날마다 목주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애가 셋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면죄부가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기 짝이 없다. 신앙인의 삶이 이래도 되는지 자문하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큰소리를 치곤 한다. '천동벌거숭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매주 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대충 해도 좀 봐줍시다. 애들 키워놓고 나면 진짜 성실히 한다니까요.' 애들이 아니었으면 핑계 몇 개 없어서 어쩔 뻔 했나 싶다.

나는 시간 없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자꾸만 시간이 한없이 남아있는 것처럼 군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작년 성탄 판공성사를 하고 받은 보속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서 살았어도 딱히 큰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걸까. 만약에 내가 날린 공수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들을 다 갚으라고 종용하신다면? 울면서 후회할 게 뻔한 데도 여전히 실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단한 게으름이다.

애들이 엮지른 우유나 주스를 닦으면서 '아이고 아까 발견했을 때 얼른 치울 걸' 후회했던 적이 몇 번이 있는지 모른다. 공원에 꽃들이 예쁘게 핀 걸 보고 애들 데리고 한번 가야지 생각만 하다가 그대로 꽃이 져버린 적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은 우릴 기다리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생각났을 때 그 일을 해야 한다. 당장 오늘이 심판의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성 요한에 따르면 누구나 마지막 심판 날엔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질문을 받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큰일이다. 소중한 아이들을 내 게으른 신앙의 핑계로 삼기 전에, 이 아이들을 있는 힘껏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본다.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현대 유사종교의 뿌리

‘유사 그리스도교’의 추종자들은 교주가 특별한 사람이며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한다(8월18일 연중 제20주일 주보 참고).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앞선 다른 사이비 교주들에게서 배운 것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들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일제 강점기 1920~30년대 개신교가 성했던 북한 지역에서 ‘신령파’(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들)의 바람이 불었다. 유명화, 백남주, 이호빈, 황국주 등이 이용도를 앞세우고 원산을 중심으로 ‘예수교회’를 설립 활동하다 감리교단의 제재를 받았다. 평안북도 지역에서는 장로교회의 권사 김성도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일명 ‘새주파’(새로운 주님을 모시는 이들, 성주교회)가 등장했다. 신비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여인은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 곧 음란이 타락의 동기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시는데, 한국으로 오신다. 그러면 만민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신령파에 폭 빠져 있던 사람 중의 하나가 김백문이었다. 그는 1940년대에 경기도 파주로 내려와 ‘야소교’(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우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추종자를 모았다. 그는 [성신신학]과 [기독교 근본원리]라는 책을 써서 새주파 김성도의 이론을 퍼뜨렸다. 한편 정득은이라는 여성이 나타나 ‘성혈전수’(피가름-정화된 자의 피를 먹여 다른 이를 정화하는 행위)또는 ‘영체교환’(정화

된 자와의 성관계를 통한 정화)을 주장하게 된다. 김백문과 정득은의 영향을 받은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문선명과 박태선 장로이다. 문선명은 [원리강론], 박태선은 [오묘원리]에서 이들의 이론을 베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950년대에 신령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교단을 세우기 시작한다. 평양에서 신령파 신도들을 모아 활동하던 문선명은 한국전쟁기에 부산으로 내려가 추종자들을 규합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1954)를 세운다. 박태선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1955)를 설립한 후 1957년부터는 ‘신양촌’(부천, 남양주 덕소, 부산 기장)을 만든다. 그는 자신을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입신체험, 방언, 치유 등의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이들이 용문산기도원, 삼각산기도원 등에 모여 박수와 노래, 통성기도, 안수 등의 열광주의적 운동을 벌인 것도 이때이다.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들을 따라다니던 이들이 다양한 종교단체를 세워 분열되기 시작한다. 문선명의 통일교 계열의 생령교회, 청수교회, 생수교회, 우주신령학회 등과, 박태선의 전도관 계열로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호생기도원, 대한기독교장막성전, 천국복음전도회, 재창조교회, 동방교,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등이 등장한다. JMS의 정명석은 통일교의 전도사 출신이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20대 후반에 전도관에 들어갔다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거쳐 다시 거기서 나온 백만봉의 솔로몬 재창조교회까지 따라갔다가 나이 오십에 신천지증거장막을 세웠다. (다음에 계속) ☸

1) 야소: 예전에 예수님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다.

2) 올리브나무

풍동의 여름이야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 13,52)

풍동 친구들은 성령칠을 주제로 8월 4~6일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게임으로 획득한 힌트를 통해 다른 조의 성령을 추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령의 은총에 대해 즐겁게 익혀 볼 수 있었고, 캠프에서 빠질 수 없는 시원한 물놀이와 게임도 하며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회 친구들이 직접 준비해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둘째 날 밤의 꽃이었던 패션쇼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모회 어머니들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간식으로 더욱더 즐겁고 행복했던 2박 3일 여름 캠프였습니다.



멜랑콜리아 (1)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우울과 슬픔을 의미하는 외래어 ‘멜랑콜리(멜랑콜리아)’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곱씹을 만한 개념입니다.

남모르게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탈 없어 보이는 얼굴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뒷모습에는 우울함의 정서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봅니다. 현대인들에게 슬픔과 우울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승화하는 자리는 더 이상 찾기 어렵습니다. 고립감 속에서 슬픔과 우울함은 존재에 통합되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버티다 파멸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슬픔과 우울함은 단지 ‘치료’라는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역시 점점 분명해집니다.

온갖 즐거운 쾌락과 자기 표현의 길이 널린 자유의 세계인 듯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슬픔과 우울함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이유를 고민하다가 어쩌면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슬픔과 우울함인가 라는 질문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과 우울함의 근원과 슬픔과 우울함이 가리키는 곳과 슬픔과 우울함이 열어주는 가능성을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함이 나를 감싸고 있음에 흠칫 놀라고, 은폐하고 외면하기 보다는 ‘멜랑콜리’를 보다 깊이 있는 삶, 보다 깊이있는 나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초대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감행 이야말로 슬픔에 탐닉하거나 우울함이 절망적 낙담(아케디아)라는 죄의 뿌리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멜랑콜리’에 관한 학적 계보학을 방대하면서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김동규의<멜랑콜리아> (문학동네, 2014)는 우리말로 된 좋은 동반자라 할 만합니다.

‘멜랑콜리’를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날 다시금 그토록 슬프고 우울한 음악이 빛을 보는 것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진지한 현대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현대의 여러 뛰어난 작곡가들은 복잡한 기법을 과시하는 경향을 뛰어넘어 영적, 정서적 갈망을 담은 많은 뛰어난 곡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없이 슬프고 우울한 정조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는 곡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발틱 지역에 위치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출신의 현대 음악가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독일 작곡가이지만 이들과 통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이는 이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현대음악 작곡가 중 한 명이자 영화음악 작곡가로도 유명한 막스 리히터 Max Richter(1966 -) 입니다. 막스 리히터의 작곡가로서의 비평적 평가와 대중적 명성을 확고하게 한 초기 작품 ‘블루 노트 The Blue Note(2004)’ 앨범에 수록된 작품인 ‘햇빛의 본질에 대하여 On the nature of daylight’는 테드 창 의 소설<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The Arrival (우리말 제목: 컨택트 (2016) 의 시작과 끝에 삽입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막스 리히터는 최근에 이 곡을 새로 편곡해서 직접 다시 녹음했습니다. 슬픔과 우울과 치유의 음악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시대의 ‘징후’로서 멜랑콜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

YOUTUBE로 보기



막스 리히터 Max Richter
'The Blue Notebooks' (2018)
<On the nature of daylight>



미사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0/12(토) 10시 후곡 성당
 10/19(토) 9:50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3.4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월피정

일시: 10/7(월) 10시~16:30(말씀,미사,축복기도)
 강사: 김종민.하비에르(대건 까리따스 담당)
 장소: 주교좌성당 대성전
 문의: 010-3790-0496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
 (10/11) /주제: 제5주 기적의 은사
 강사: 윤민재 베드로 신부(수원교구 상촌주임사제)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행복지수를 높이는 마음챙김 피정

내용: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여정
 일시: 10/19(10시~16시까지)
 문의: 평화심리상담소(02-775-4831)

파티마 성모발현 피정

일시,장소: 10/13(일), 파티마평화의 성당
 (점심제공)10시 기도, 11시 강의, 13시 성시간, 14시 미사, 성체거동행렬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일시: 10/26(토)~11/3(일) /48만 원
 11/15(금)~23(토)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가정선교회(부부나들이 피정)

주님 사랑 안에서 듣고, 깨달고, 쉬고, 힐링되어가는 프로그램 /장소: 아론의 집
 일시: 10/19(토) 14시~20(일) 17시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15만 원(신자, 냉담자도 환영)
 입금: 신헌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요)
 찬미 : 고영민 단장, 손현희
 준비: 미사, 수건, 차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제주명령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0/17~19, 10/27~29, 11/3~6(추자도), 11/11~13, 11/24~27(추자도), 12/2~4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노폐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11/8(금)~11(월), 12/6(금)~9(월)
 피정지도: 토마스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 010-9363-7784(신 글라라)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 딱 좋은 이유 /심백섭 신부
 일시/장소: 10/16(수) 13:30~16:3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최봉도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피정 2박3일

일시: 10/18~20, 11/15~17(금~일) 마음이가벼워지는방법 장소: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피정비있음)
 (지하철 2, 6호선 7번출구) 선착순80명
 문의: 010-6254, 0057 전 크리스티나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10/22~25, 11/1~3, 11/5~8, 11/12~14, 11/21~24

엄마와 딸 모녀피정

일시: 11/2(토)~3(주일) /참가비: 1인 5만 원
 대상: 엄마& 40세 미만 딸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피정집
 문의: 043-879-8500, 010-8880-8286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루가 11,23) /심종혁 신부
 일시/장소: 10/11(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서울 삼성산 2박3일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10/11(금)15시~10/13(주일)15시
 장소: 삼성산피정의 집
 강사: 한철호, 김종일 신부, 권민자 수녀 등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문의: 010-8362-9857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10/26~27, 11/16~17
 3박4일: 11/21~24, 12/19~22
 8박9일: 11/4~12, 12/26~20.1/3
 40일: 12/13~20.1/21, 20.4/14~5/22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11월피정

월피정: 10/26(토), 11/16(토) 10:30~16:20
 위령9일기도: 11/2(토)~10(일) 11시
 문의: 02-990-1004



교육 · 모집 ▶▶

청년 수지에니어그램 안내

교육내용: 나를 마주하고 존재 그대로 이해, 수용하는 여정
 강사: 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 수사
 일시: 10/12(1차), 11/9(2차), 12/14(3차) 14시~18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인원: 각 차수별 의정부교구 청년 10명(선착순)
 참가비: 1인 1만 원(저녁식사 제공)
 문의: 청소년사목국 031-850-1460

'천주교 의정부교구 제9기 민족화해학교' 교육 안내

일시: 10/14, 21, 28, 11/4, 11(매주 월, 19:30~21시, 총5강)
 심화과정 연수: 11/30(토)~12/1(일) /민족화해센터 /종강미사 및 수료식: 12/1(일) 16시 /민족화해센터
 장소: 의정부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대상: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에 관심 있는 분
 수강료: 5만 원(1인) /접수마감: 선착순 40명
 문의: 031-941-6235-6 민족화해위원회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 모집

분야: 사회재활교사(사회복지사), 사무직(회계,행정) /참조: www.caritasdaegun.or.kr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문의: 031-850-1482

이주민 치과진료봉사자 모집

대상: 월 1회 이상 진료가능한 치위생사
 활동: 파주 EXODUS 치과진료봉사
 문의: 031-948-8105, 담당: 김광한 스테파노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시스피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종교수의 성가 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주1회),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월) 오전 11시, 성가반주 오르간 교실 (개인레슨)

2020학년도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5(화)~11/14(목)
 모집전공: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융합조형,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스케어환경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입학문의: 032-830-7015

요양보호사 모집(3교대)

기관: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경기 포천시)
문의: 010-9795-0032

2020겨울복사학교

1단계: 1/13~14, 1/15~16
2단계: 1/17~18, 1/20~21
전례 봉사자 캠프: 2/3~4, 2/5~6
문의: 바다의별 청소년 수련원 032-932-6318

관광기도 배우기(제21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장소: 행주 성당 (회비무료)
일시: 10/8(화) 14시~16시(6주간)
문의: 031-974-1728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 전기(주간) 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명 /박사: 신학, 교의, 조직, 영성, 환경(생태),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명
일반 및 편입학 전형: 10/14(월)~24(목)
전형일: 11/8(금) /일반 및 편입학 2차전형: 11/25(월)~12/5(목) /전형일: 12/20(금)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 임시모집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과정(4년제)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 분야: 게임그래픽&애니메이션, 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모집일정: 3차-10/14~23(월~수), 10/26(토), 10/30(수),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문의: 02-705-8678, 경의선 서강대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입학사이트" 참조
<https://www.soganggame.ac.kr>

평신도사도직역구소 공개 세미나

주제: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Synodalitas) 실현
발제: 최현순 박사, 사회: 주원준 박사, 토론: 한민택 신부 외 분야별 패널 토론
일시: 10/19(토) 14시~18시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문의: 02-777-2013

2020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산하의 기숙형 여자 고등학교인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함께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입니다.
모집인원: 여학생 13명 /원서접수: 10/7(월)~10/23(수) 문의: 070-8891-3831(교무실), 031-832-9988(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전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16~12/16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금융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모현센터의원 간호사 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안내 · 기타 ▶▶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9(3, 5주 선택)
가톨릭계 학교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4~2/23(5, 7주)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골롬반평신도선교사(해외선교) 관심자모임

일시: 10/13(일) 14시~17시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1번출구)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야곱 전국 교구별 성지순례 02-755-3009

대전: 10/23~10/24 대구: 11/7~11/8
원주, 춘천: 12/13~12/14,
광주, 전주: 12/5~12/7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11/4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125만 원
11/4 유럽4개국 성모님 발현지 13일 368만 원
11/7 스페인 중·남부-포르투갈 12일 328만 원
11/19 성서못자리 22차 이스라엘 9일 375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0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월 11/18, 12/3 289만 원
이스라엘 9월 1/5 299만 원
이태리 9월 11/7 279만 원, 1/21 299만 원
성모님발현지 13일 10/28 399만 원, 2/3 389만 원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10/21~23, 11/5~7, 12/17~19
장소: 제주성지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20. 3/2 그리스터키 12일

2020년 1월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oakinternational.co.kr

61차 이태리 순례

일시: 20.5/3~5/15(12박13일), 450만 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34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1/14(화)
설명회: 10/19(토) 14시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070.4365.7297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순전기사도회에서는가족,효도,단체 관광및성지안내차량,호텔,펜션,골프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예수회	10/12(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0/5(토) 14시, 10/6(주일) 10시, 14시	가톨릭회관 은하수갤러리	010-3015-1773



교회(2) : “일어나 비추어라.” (이사 60,1)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宣敎)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종교를 홍보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선교 명령의 궁극 원천은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앎으로써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 이 진리를 위임받은 교회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 그들의 희망을 맞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구원 계획이 보편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50-851항)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 또한 우두커니 서서 찾아오는 사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모으신” 공동체로서 그 “불러모음” 즉,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의미를 단순히 교세(敎勢) 확장을 위한 교회 홍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지역 또는 종파에 속한 개별교회들 사이의 그릇된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것일 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福音)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福音)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교

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권력도 재물도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재정이 풍족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의 가치와 기쁨을 간직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는 씨앗이 뿌려지면 농부가 잠을 잘 때에도 저절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마르 4,26~29 참조). 교회는 가능할 수 없는 말씀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셈과 생각을 뛰어넘어 그 뜻을 이룹니다.”(복음의 기쁨 22항)

복음 말씀에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힘과 정의롭게 하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말씀에 따라 쇠신되어야 하고, 복음 말씀에 따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채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 안에 머물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과의 친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